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 조선업의 뒷심…한국조선해양, 1조원 규모 선박 6척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16일 2척의 LNG선에 대한 수주를 공시함. 아시아 소재의 선사로부터 17.4만CBM급 대형 LNG선 2척을 수주했으며 계약규모는 4,067억원이라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4년 10월까지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다고 보도됨. 한국조선해양은 15~16일 동안 1조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공시함. (연합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산업설비 부문 분할…“경쟁력 강화 목표”

현대삼호중공업이 산업 설비 사업을 물적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공시함. 분할 후 존속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선박 건조업을, 신설회사인 현대인프라솔루션(가칭)은 산업 설비 제조업을 담당하게 된다고 보도됨. 분할 기일은 2021년 5월 3일이라고 공시됨. (연합뉴스)

현대로템, 한국형 열차신호시스템 첫 수주…전라선 시범 적용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국산화 차상신호장치(KTCS-2)를 수주해 무선 통신을 활용한 한국형 열차 신호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보도됨. 현대로템이 개발한 KTCS-2 기술은 4세대 무선통신 기반의 철도 통신망(LTE-R)을 활용해 열차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신호 시스템으로, 이번이 첫 수주라고 보도됨. 국가철도공단이 전국 모든 노선에 KTCS-2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2024년까지 시장규모는 약 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

Study finds LNG-fuelled VLCCs can save \$8,000 per day

Chanoil Consulting과 Gibson Shipbrokers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VLCC(초대형유조선)가 LNG를 이중연료로 채택할 경우 일일 8,000 달러 가량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도됨. VLSFO로만 운항하는 VLCC의 일일 연료비용은 19,250달러이나 LNG 이중연료 채택시 하루 11,518달러의 비용만이 발생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Clarksons forecasts slight rebound for bulkers in 2021 despite 'headwinds'

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낮은 선복량 증가율과 건화물(dry bulk) 물동량 반등으로 인해 2021년 벌크선 시황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minor bulk와 철광석, 곡물 등의 물동량 증가가 2021년 벌크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됨. 2021년 Bulk 해상교역량은 +4%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Australia plays down talk of retaliatory iron ore levy on China

중국은 그동안 중국향 철광석 수출물량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를 과시해왔지만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라고 보도됨. 호주 정부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호주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더이상 과시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힘. (TradeWinds)